

EDU-03 한눈에 보기

월별 숫자에만 매이지 않고 불규칙 지출과 충격까지 견디는 생활 안전망을 만든다.

왜 배우나요?

예산은 절약표가 아니라 생활을 꾸기지 않게 하는 시간표입니다

필수개념

- 현금흐름: 일정 기간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움직임입니다.
- 고정·변동·비정기 지출: 반복 방식에 따라 지출을 나눈 것입니다.
- 필수생활비: 당장 생활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지켜야 할 비용입니다.
- 비상자금: 소득중단이나 갑작스러운 필수지출에 쓰는 접근 가능한 돈입니다.
- 생활비 바닥선: 위기에도 먼저 남겨 둘 최소 생활비 기준입니다.

이 과제를 네 문장으로 이해하기

- 가계예산은 돈을 아끼라는 명령이 아니라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의 시점을 맞추는 계획입니다.
- 매달 같은 지출, 달마다 달라지는 지출, 가끔 큰돈이 드는 지출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.
- 비상자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소득 중단이나 갑작스러운 필수지출에 대비해 따로 둔 돈입니다.
- 적자가 예상되면 추가 대출보다 먼저 지출 시기 조정과 공적 지원·상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.

핵심 4문장

- 예산은 절약 경쟁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기 전 우선순위를 정하는 안전장치다.
- 월급일이 같아도 납부일이 앞서면 현금이 모자랄 수 있다. 금액과 날짜를 함께 적는다.
- 명절·보험료·세금·수리비는 비정기일 뿐 뜻밖의 지출은 아니다. 1년 예상액을 12로 나눠 준비한다.
- 비상자금은 투자수익보다 접근성·원금 변동·인출 시간을 먼저 본다.

새로 확인할 생활 주제

- 구독·후불결제는 다음 달 현금흐름까지 차지합니다. 필수생활비를 먼저 떼고, 사용하지 않는 연결·구독을 해지한 뒤 다음 달 잔액을 다시 계산합니다.

판단 5단계

- 지난 3개월 실제 거래를 수입·필수·선택·상환으로 나눈다.
- 월평균이 아니라 가장 적게 번 달과 가장 많이 쓴 달도 본다.
- 필수생활비를 계산하고 현재 비상자금이 몇 달을 버티는지 적는다.
- 정상·주의·비상 단계별로 중단할 지출과 연락할 기관을 정한다.
- 30일 뒤 계획과 실제의 차이를 한 줄로 설명한다.

도움 요청

추가 손실을 멈추고 사실·증거·요구·기한을 적어 공식 기관에 문의한다.

내용 기준 2026-08-24 · 다음 점검 2026-11-20 · 2026년 8월 제1판